

내연·전기차 장점만 ‘쏙’... 하이브리드 성장세 두드러져

지난달 베스트셀링 모델 대거 포진 국내외서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 “연비 등 메리트... 인기 이어질 것”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전기차의 등장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친환경차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전기차 시장이 총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성장세가 줄어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7일 국내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 판매된 자동차 가운데 베스트셀링 모델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갖춘 차량들이다. 1위는 기아 쏘렌토(8671대)가 차지했으며 카니발(7989대), 쏘렌토(7413대), 스포티지(6991대)가 뒤를 이었다. 지난 1월에도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기아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현대차

쏘렌토, 쏘렌토, 카니발, 스포티지인 기아 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쏘렌토와 쏘렌토, 카니발 등의 전체 판매량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6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해 시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지난 달 28일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스타리아 하이브

리드를 출시했다. 또 내년 출시되는 신형 팔리세이드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중·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는 2.5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체기를 겪고 있는 수입차 시장도 하이브리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수입 승용차 판매량은 1만6237대로 전년

대비 24.9% 감소했다. 올해 누적 판매량 역시 1년 전보다 22.5% 줄어든 2만9320대에 그쳤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금리 영향으로 구매자들의 소비심리가 닫히면서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가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5% 감소했다. 반면 하이브리드를 앞세운 토요타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토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는

지난달 919대를 판매하며 전체 4위를 기록했다. 토요타 역시 736대로 7위를 기록했다. 두 브랜드 합산 판매량은 1655대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8876대로 전체의 54.7%를 차지했다. 토요타가 이처럼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배경에는 하이브리드 기술력은 물론 과거 반일 정서가 높아 판매량이 급감했음에도 꾸준히 최상의 서비스에 집중한 영향도 있다.

토요타는 올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토요타 캠리, 렉서스 LM 등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총전 인프라 등의 문제로 전기차 시장이 다소 주춤하면서 뛰어난 연비와 편의성을 갖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인기를 얻고 있다”며 “글로벌 업체들이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어 당분간 하이브리드의 인기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박지원 두산에너지빌리티 회장, 가스터빈 사업 현황 점검

“갑진년, ‘K-가스터빈’ 수주확대 원년”

박 회장 등 주요 경영진 창원 방문 5년간 국내서 7조 이상 수주 목표

“K-가스터빈 개발 성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수소터빈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

박지원 두산에너지빌리티 회장이 7일 경남 창원에 있는 가스·수소터빈 제작 현장을 방문해 올해부터 가스터빈 수주 확대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박지원 회장, 파워서비스BG 손승우 부사장을 비롯해 (주)두산 CSO 김도원 사장, CFO 김민철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은 이날 현장에서 본격적인 가스터빈 수주 확대를 앞두고 임직원을 격려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 중인 수소터빈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2013년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착수해 2019년 세계 5번째로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김포열병합발전소에 첫 공급한 가스터빈이 지난해 7월 상업운전에 성공하며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 보령신복합발전소, 2024년 안동복합발전소 가스터빈 공급계약을 따내며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두산에



박지원 두산에너지빌리티 회장(오른쪽)이 초대형 가스터빈 정격부하(FSFL, Full Speed Full Load) 성능시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너지빌리티는 향후 5년간 국내에서 7조 원 이상 수주를 목표로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가스터빈 원천기술을 활용한 수소터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로 고효율 H급(1500℃ 이상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초내열 합금 소재로 제작한 고효율 터빈) 수소터빈의 수소 혼소 50% 기술을 개발중이며, 개발된 기술은 한국동서발전의 울산복합발전소에서 실증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400MW급 초

대형 수소 전소 터빈을 2027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H급 수소터빈은 기존 수소터빈(E급) 대비 연간 약 460억원의 연료비 절감과 연간 약 5만톤 추가 탄소 배출 감축이 가능하다.

박지원 두산에너지빌리티 회장은 “올해는 340여 개 국내 산학연이 함께 이루어낸 K-가스터빈의 수주를 본격 확대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가스터빈 개발 성공으로 얻은 자신감과 기술력으로 고효율 무탄소발전 기술로 부상하는 수소터빈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HD현대케미칼,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생산

CJ제일제당 업무협약 체결 올해 말까지 1.2만t 생산 계획



오 원료·플라스틱 선순환 비즈니스 (왼쪽부터) 김상익 CJ제일제당 식품한국대표, 고영규 HD현대케미칼 대표가 7일 친환경 바이오 원료, 플라스틱 선순환 비즈니스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D현대케미칼과 CJ제일제당이 손잡고 친환경 바이오 납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생산에 나선다.

HD현대케미칼은 CJ제일제당과 ‘친환경 바이오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HD현대케미칼은 바이오 원료 400톤을 초도 투입해 올해 말까지 1만2000톤의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HD현대케미칼은 CJ제일제당으로부터 대두유, 폐식용유 등의 바이오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HD현대케미칼은 공급받은 바이오 원료를 투입해 바이오 납사를 만들고, 바이오 납사로 생산한 친환경 플라스틱을 다시 CJ제일제당에 공급한다. 공급한 친환경 플라스틱은 CJ제일제당

의 간편 가정식 용기와 포장재 등에 활용된다.

고영규 HD현대케미칼 대표는 “국내 최초로 바이오 원료 투입부터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생산까지 생산 전 과정 I SCC 인증을 받았다”라며 “바이오 납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석유화학사와 달리 바이오 납사 생산부터 완제품 공급에 이르는 전체 생산 과정을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HD현대중, 특수선 해외 기술거점 구축

마닐라에 엔지니어링 오피스 개소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을 거점 삼아 2030년 10억 달러 규모의 동남아시아 합정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마닐라 보니파시오에 특수선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개소하고 K-방산 경쟁력 확대에 나섰다 7일 밝혔다. 지난 6일(현지시간)

진행된 특수선 엔지니어링 오피스 개소식 행사에는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대표와 국방부 호셀리도라모스 국방획득차관보, 시저 발렌시아 필리핀 해군 부사령관, 요셉 코미 필리핀 해경 해양안전사령관 등 양측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이 합정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기술 거점 구축에 나선 까닭

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증대되는 방산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라고 회사는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엔지니어링 오피스에 특수선 사업부 소속 ▲설계 엔지니어 ▲MRO ▲영업 담당 직원들을 파견해 현지 수요에 최적화된 기술 사양과 인도된 합정의 기술지원 및 보증수리 컨설팅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공략을 통해 2030년 매출 2조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 제도 도입

이달 중 EV 인증 중고차 판매

현대자동차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EV)를 마치 전자 기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트레이드-인)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신형 EV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현대차·제네시스 EV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차량 매각대금 외 별도 보상금(매각대금의 최대 2%)과 신형 EV 가격 5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한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를 타다가 보상판매를 통해 현대차 신형 EV를 구입할 때도 매각대금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3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에 시작한다. 주행거리 6만km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된 차량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내연기관차(주행거리 10만 km 이하, 신차 등록 후 5년 이하 차량)와 비교하면 신차 등록 후 기간이 짧은 편이다. /양성운 기자